

이 콘텐츠는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따라 최초 제작일부터 5년간 보호됩니다.
본 콘텐츠의 무단 배포 시,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본문해설

달이 어째서

기원의 대상, 화자와 무량수불을 이어 주는 매개체, 서방 정토의 사자(전달자)

서방까지 가시겠습니까

극락정토

무량수불 전에

극락으로 중생을 인도하는 부처(아미타불), 궁극적 기원의 대상

보고의 말씀 빠짐없이 사뢰소서

왕생하려는 화자의 소망의 전달을 원함

[1-4구] 달에게 청원을 함

서원(誓願) 깊은신 부처님을 우러러 바라보며

부처에 대한 경배심과 소망의 간절함을 표현

* 서원 :원하는 것을 세우고, 그것을 이루고자 맹세하는 일

두 손 곧추 모아

합장하는 모습, 경건한 자세

원왕생 원왕생

극락에서 다시 태어나기를 원함 - 작품의 주제 의식

그리는 이 있다 사뢰소서

화자

[5-8구] 극락왕생에 대한 기원, 청원 내용의 구체화

아아, 이 몸 남겨 두고

10구체 향가의 보편적 특징 (낙구의 감탄사)

사십팔대원 이루실까(설의법)

부처가 모든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마음먹었던 48가지 큰 소원

- 내가 왕생하지 못하면 부처의 대업이 이루어지지 않으니 내가 왕생할 수 있게 도와달라는 의미

[9-10구] 소원 미성취를 염려, 소망에 대한 강한 청원

▣ 시어, 시구 풀이

- 서방 : 불교에서 서쪽으로 10만 억 국토를 지나서 있다고 하는 아미타불의 극락정토
- 무량수불(無量壽佛) : 아미타불. 이 부처를 염하면 극락(서방 정토)에 왕생한다고 함
- 사뢰소서 : 말해 주십시오.
- 원왕생(願往生) : 죽어서 아미타불이 계신 서방정토(西方淨土)에 태어나기를 바램
- 四十八大願(사십팔대원) : 아미타불이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마음먹었던 48가지 큰 맹세와 소원
- 아아, 이 몸 남겨 두고/사십팔대원 이루실까.
무량수불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신의 소망을 들어주어야 한다는 점을 가정법·설의법으로 제시함으로써 소망 성취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 주고 있다.

▣ 원왕생 원왕생(願往生願往生)의 의미

이 노래의 주제가 집약적으로 나타나 있다. ‘원왕생’이란 ‘왕생극락을 원한다.’라는 말로서, 곧 죽어서 극락에 태어나기를 기도하는 것이다. 비록 함축적인 어휘로 표현되었지만 현실 세계를 벗어나고자 하는 몸부림이 투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당장이라도 현세를 초월하겠다는 시적 화자의 간절한 소망이다.

▣ 핵심 정리

- 갈래 : 10구체 향가
- 성격 : 불교적, 기원적(祈願的)
- 표현 : 비유법, 상징법, 설의법
- 제재 : 달
- 주제 : 극락 왕생에 대한 간절한 염원
- 의의 : · 아미타 신앙을 바탕으로 하여 서방 정토에의 왕생을 기원한 서정 가요
· 의식적인 격식을 갖추고 있는 기원가(祈願歌)
- 연대 : 신라 문무왕 때(661~681)
- 출전 : 『삼국유사』 권 5
- 작가 : 광덕(廣德, ?~?)

신라 문무왕(文武王) 때의 고승(高僧). 분황사(芬皇寺) 서리(西里)에 은거하며 16관법(十六灌法 ; 중생이 죽어서 극락 세계를 가기 위해 닦는 법)을 닦아 마침내 서방 정토에 태어날 수 있었다 한다. 작품으로는 향가 ‘원왕생가’가 전한다.

▣ 배경설화

이 노래는 유사 권 5 광덕엄장 조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문무왕때 사문광덕 엄장이란 두 사람이 있어 사이가 매우 좋았으니, 항상 둘 중 누구든지 먼저 잘되면 알려 주기로 하였다. 광덕은 분황서리(芬皇西里)에 처자를 데리고 은거하여 쉼이나 삼아 그날그날 지내고, 엄장은 남악에 살면서 농사를 지어 지냈다.

어느날 저녁에 “나는 벌써 소원 성취했네, 나를 따라 오세”하는 소리가 문밖에서 난다. 문을 열고 내다보니 중천 구름 밖에서 나는 소리였다. 이튿날 아침 광덕을 찾아가 보니 과연 죽었던 것이다. 장례를 치른 뒤에 과부가 된 그 부인에게 같이 살기를 청하였다. 과부도 허락하므로 엄장은 속으로 좋아서 같이 지내면서 동침(同寢)하기를 청하니, 의외에도 거절하며 말하기를 “당신이 정토(淨土)를 바란다는 것은 나무에서 고기를 구하는 것과 같다”고 한다. 엄장은 놀라서 “그러나 광덕하고는 같이 잔 것이 아니다, 그렇거늘 나와 같이 잔다고 한들 어떠냐?”고 하니, 과부가 하는 말이 광덕은 나와 같이 10여 년을 동거하였어도 한번 잠자리를 같이 한 일이 없다. 하물며 더러움을 쌓는 일일진정, 그는 다만 매일 밤 정좌하여 염불 외고 십 육관(十六觀)을 했었다. 정신을 이렇듯이 하였는데, 천리를 갈려면 한 걸음부터 골라야 하는 법, 당신이 정토를 원한다는 것은 기가 막힐 일이다.“라고, 이러는 바람에 그는 얼굴을 붉히고 쥐구멍을 찾는 듯이 도망쳐 그 길로 원효 법사를 찾아가서 도를 닦고 소원 성취하였다. 광덕의 처는 곧 분황사(芬皇寺)의 비(婢)가 되었다.

▣ 해설 1

신라 문무왕 때 광덕이라는 중이 달을 서방 정토의 사자(使者)로 비유하여 그 곳에 귀의하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을 읊은 노래이다.

달은 어두운 밤과 관련된다. 밤의 어둠 속에서 그 어둠과 대조를 이루는 유일한 존재인 달은 어둠 속에 존재하는 시적 자아의 친화(親和)의 대상이 되면서 어둠 속 어딘가에 존재하는 그리움의 대상이 달빛을 통한 교감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노래에서 광덕은 아미타불에게 귀의하고자 하는 마음을 달에게 의탁하고 있다.

이 노래에서 서정적 자아가 그리는 대상은 아미타불이다. 차안(此岸)에서 피안(彼岸)의 서방정토의 아미타불을 회구하고 있다. 그런데 달은 차안과 피안을 오고 갈 수 있는 불법(佛法)의 사자이다. 그리하여 시적 자아는 가슴 깊은 신앙심이 아미타불에게 전하여 지기를 달에게 빌고 있다. 즉 달을 통해 서정적 자아의 불교적 신앙심을 형상화한 것이다.

■ 시상 전개 과정과 청원의 성격

이승 화자	→	매개체 달	→	서방 무량수불
	1-4구 [간접적 청원] 부처님께 저의 소원 을 전해 주십시오.		5-8구 [직접적 청원] 두 손 곧추 모아 원 왕생을 그립니다.	
9-10구 [청원의 심화] 소원 미성취에 대한 염려와 강한 청원				

■ ‘원왕생가’에 나타난 ‘달’의 상징성

‘달’은 어두운 밤을 밝혀 주는 광명의 달이며, 신적인 달이다. ‘원왕생가’에서 광덕은 아미타불에게 귀의하고자 하는 마음을 달에게 의탁하고 있다. 이 노래에서 시적 화자(광덕)는 차안(此岸)에서 피안(彼岸)의 서방 정토의 아미타불을 희구하고 있다. 그런데 달은 차안과 피안을 오고 갈 수 있는 불법(佛法)의 사자로 나타나 있다. 그리하여 시적 화자는 가슴 깊은 신앙심이 아미타불에게 전해지기를 달에게 기원하고 있다. 즉, 달을 통해 시적 화자의 불교적 신앙심을 형상화한 것이다.

■ ‘원왕생가’에 반영된 불교 신앙

신라는 삼국 중에서 불교를 가장 늦게 받아들였고, 그 과정에서도 많은 시련이 있었으나 그 이후에는 신라가 불국토임을 내세울 정도로 불교가 매우 융성했다. 따라서 불교는 신라의 문화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쳤다. 이 작품은 미천한 처지에 있었던 광덕이라는 사람이 열심히 불도를 닦아서 마침내 서방 정토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 줌으로써, 일반 백성들도 열심히 불도를 닦으면 극락 왕생할 수 있다는 믿음을 드러내고 있다. 또한 배경 설화를 보면 광덕은 아내와 한 번도 동침하지 않고, 또 여러 가지 현실적인 고난을 극복하며 불도에 정진하여 서방 정토에 귀의하였다는 내용이다. 따라서 이 작품은 현실의 어려움을 불교 신앙으로 극복해 보고자 하는 마음과 불교에 대한 깊은 신앙심도 아울러 드러나 있다.

이 노래는 달에게 의탁해서 극락 세계에 가기를 소원한 신앙의 노래이며, 불교 내세 사상을 반영하고 있다. 이 노래에서 달의 의미는 매우 중요한데, 달은 광덕이 발 딛고 서 있는 차안과 아미타불이 계신 피안의 서방정토를 오고 갈 수 있는 불법(佛法)의 사자(使者)인 것이다. "원왕생(願往生)"이란, 왕생극락을 원한다는 말로서, 곧 죽어서 극락에 태어나기를 기도하는 것이다.

극락은 그리스도교에서 말하는 천당과 같으며, 불교에선 아미타불이 계시는 서방정토를 말한다. 이 노래는 소위 아미타불의 48대원을 중심으로 노래한 것인데, 그것은 아미타불이 부처가 되기 전에 만일 자기가 부처가 된다면 48가지 일을 완전히 성취하겠다고 한데서 유래된 말이다.

불교적이면서도 신앙에의 갈등이나 초조와 갈망이 자신의 공덕을 시험해 보고 싶은 자긍심과 함께 섬세하게 나타난 작품이다. 노래에 간직된 가사의 뜻은 소박하고 솔직하다. 그러나 염불을 외워서 서방정토에 가 태어나겠다는 생각은 그 자체가 학식에 물들어 있는 비판적인 정토관보다는 더욱 서민적이고 또 진실한 종교적 발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부부관계를 종교적인 신앙심으로 맺어진 신성한 계약으로 생각하고, 자기 아내와 더불어 육욕의 세계를 초월한 참된 공적을 닦아야만 정토에 갈 수 있다는 것은 범부(凡夫)가 쉽게 이를 수 있는 삶은 아니다.

▣ 향가의 구성 방식

4구체	<p>향가의 초기 형태, 구전되어 오던 민요나 동요가 정착된 경우가 많았다. (예시) 서동요, 풍요, 현화가, 도솔가</p>
8구체	<p>4구체에서 발전된 형태로, 4구체에서 10구체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생긴 과도기적 형태이다. (예시) 모죽지랑가, 처용가</p>
10구체	<p>향가의 가장 완성된 형태이다. 사뇌가라고도 부른다. 보통 총담사나 월명사와 같이 학식이 높은 사람들이 시를 썼다. 형식적으로도 가장 정제되고 세련된 형태이며, 내용적으로도 형이상향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4구+4구+2구'의 3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낙구라고 불리는 마지막 2구의 첫머리에는 반드시 감탄사 '아으'를 두고 있는데, 이러한 형식상의 특징은 후대의 시조 형식에 영향을 주었다. 다음과 같은 시조의 종장 첫머리의 감탄사는 향가의 형식을 이어받은 것이다.</p> <p style="padding-left: 40px;">오백년 도읍지를 필마로 돌아드니 산천은 의구한데 인걸은 간데 없네 어즈버 태평연월이 꿈이런가 하노라</p> <p>(예시) 혜성가, 원왕생가, 원가, 제망매가, 안민가, 찬기파랑가, 도천수대비가, 우적가</p>

내용 확인 문제

1. 화자와 무량수불을 이어 주는 매개체는 ()이다.

2. 중생을 극락으로 인도하는 아미타불로서 궁극적 기원의 대상은 시에서 ()이다.

3. '서방'을 ()로 표현한 이유는 불교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4. 10구체 향가는 () 구성 방식이다.

5. 시적 화자의 소망이 직접적으로 제시되어 있는 시어는 ()이다.

6. 10구에서 사용된 표현법은 질문을 하는 형식의 ()이다.

7. 이 시의 주제는 ()이다.

8. 화자가 궁극적으로 청원을 하는 존재는 ()이다.

9. 현세와 대립되는 공간을 의미하는 것은 ()이다.

10. 이 시와 같은 향가는 향가 중에서도 가장 형식적으로 세련되었기 때문에 10구체라는 이름 외에 ()로도 불린다.

11. 화자는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강한 () 태도를 보인다.

12. 이 시의 표면적 청자는 ()이고, 본질적인 청자는 ()이다.

13. 핵심 정리

- 갈래 : 10구체 향가
- 성격 : (), ()
- 표현 : 비유법, (), 설의법
- 제재 : 달
- 주제 : 극락 왕생에 대한 간절한 염원
- 작가 : ()

서술형 문제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달이 어째서
서방까지 가시겠습니까
무량수불 전에
보고의 말씀 빠짐없이 사뢰소서
서원(誓願) 깊으신 부처님을 우러러 바라보며
두 손 곧추 모아
원왕생 원왕생
그리는 이 있다 사뢰소서
아아, 이 몸 남겨 두고
사십팔대원 이루실까

月下伊底亦
西方念丁去賜里遣
無量壽佛前乃
惱叱古音多可支白遣賜立
誓音深史隱尊衣希仰支
兩手集刀花乎白良
願往生願往生
慕人有如白遣賜立
阿邪此身遺也置遣
四十八大願成遣賜去

1. 화자의 소원과 태도가 무엇인지 서술하십시오.

2. 위 시의 청자는 둘이라고 볼 수 있다. 두 청자를 비교 서술하십시오.

3. 위 시에 어떤 사상이 나타나 있는지 근거를 들어서 서술하십시오.

4. 위 시의 화자가 자신의 소원을 경건한 태도로 말하는 모습이 형상화된 구절을 찾아 쓰시오.

5. ‘달’의 의미에 대해 서술하십시오.

6. <보기>를 바탕으로 이 시의 내용과 형식상 특징을 한 문장으로 서술하십시오.

<보기>

신라인들이 즐겨 불렀던 향가는 주술적 노래와 불교적 기원을 담은 노래, 어떤 대상을 찬양하거나 추모하는 노래 등 다양한 내용을 가지고 있고, 형식도 다양하다. 현재 전승되는 작품들을 민요적 속성이 짙은 4구체와 과도기적인 형태로 보이는 8구체, 완성형이라고 볼 수 있는 10구체로 나눌 수 있다.

7. <보기>는 원형적 심상의 맥락에서 ‘달’을 정리한 것이다. 이를 활용하여 이 노래의 ‘달’을 해석하십시오.

<보기>

- 재생 : 달은 한 달을 단위로 새롭게 태어난다.
- 광명 : 어둠과 대조를 이루는 유일한 존재로 세상을 비춘다.
- 소멸과 총만 : 총만한 보름달이 되었다가 소멸하는 그믐달이 된다.
- 중개자 :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가면서 만물을 비추어 준다.
- 천지신명 : 달은 하늘에 떠 있는 존재로 인간에게는 신적인 존재이다.

8. <보기>와 같은 시조의 원형을 이 노래와 같은 향가에서 찾기도 한다. 그 근거를 이 노래에서 찾아서 서술하시오.

<보기>

오백년 도읍지를 필마로 돌아드니
산천은 의구한데 인걸은 간데 없네
어즈버 태평연월이 꿈이런가 하노라

9. 이 노래에서 '원왕생(願往生)'의 뜻을 20자 이내로 풀이하시오.

10. 이 작품의 달과 <보기>의 달의 차이점에 대해 서술하시오.

<보기>

배꽃 가지 / 반쯤 가리고 / 달 이 가네.
경주군 내동면 / 혹은 외동면
불국사 터를 잡은 / 그 언저리로
배꽃 가지 / 반쯤 가리고 / 달이 가네.
- 박목월, '달'

11. 이 작품의 달과 <보기>의 달의 차이점에 대해 서술하시오.

<보기>

돌 하 노피곰 도드샤 / 어기야 머리곰 비취오시라
(후렴 생략)
저재 내려신고요 / 어기야 존 디를 드디올세라
어느이다 노코시라 / 어기야 내 가논 디 점그를세라
-어느 행상인의 처,<정읍사>

12. 다음은 학생들이 만든 조사 보고서이다. ㉠에 들어갈 것을 서술하시오.

- 조사 주제: 우리 문학 형식의 발전 과정

- 조사 대상: 광덕의 '원왕생가', 정서의 '정과정곡', 길재의 시조

- 조사 방법: 당시 대표적인 작품 셋을 비교하여 형식상의 유사점을 찾아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탐구한다.

- 조사 과정:

(1) 세 작품의 비교

 ㄱ. '원왕생가'

 돌하 이데 / 서방(西方)산장 가샤리고.
 무량수불(無量壽佛) 전(前)에 / 님곰다가 숲고샤셔.
 다담 기프산 존(尊)어히 올워러 / 두 손 모도호솔바
 원왕생 원왕생(願往生 願往生) / 그릴 사롬 잇다 숲고샤셔.
 아으 이 몸 기터 두고 / 사십팔대원(四十八大願) 일고살까.

 ㄴ. '정과정곡'

 내 님을 그리스와 우니다니 / 山(산) 접동새 난 이슷흐
 요이다
 아니시며 거츠르신 돌 아으 / 殘月曉星(잔월효성)이 아
 르시리이다
 녁시라도 임은 훈디 녀져라 아으 / 벼기더시니 뉘러시
 니잇가
 過(과)도 허믈도 千萬(천만) 업소이다. / 몰히마리신더
 솔웃븐더 아으 / 니미 나룰 흐마 니즈시니잇가
 아소 님하, 도람 드르샤 괴오쇼셔

 ㄷ. 길재의 시조

 오백 년(五百年) 도읍지(都邑地)를 필마(匹馬)로 도라드
 니,
 산천(山川)은 의구(依舊)흐되 인걸(人傑)은 간 디 업다.
 어즈버, 태평연월(太平烟月)이 솨이런가 흐노라.

(2) 세 작품의 형식상의 유사점

㉠ 여음구에 해당하는 내용이 존재한다.

㉡ 내용상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 조사 결과 : ㉠

- 조사 결론: 시조는 형식적으로 향가의 특징에서 발전된 문학이다.

13. 위 작품을 세 부분으로 나누고 각각의 시상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서술하시오.

14. 원왕생가가 종교적인 성격을 가졌다는 해석의 근거를 두 가지를 들어 서술하시오.

15. 원왕생가와 <보기>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보기>

가을에는/기도하게 하소서...

낙엽들이 지는 때를 기다려 내게 주신

겸허한 모국어로 나를 채우소서.

- 김현승, 가을의 기도

정답 및 해설

내용 확인 문제

1. <답> 달
2. <답> 무량수불
3. <답> 극락세계
4. <답> 3단
5. <답> 원왕생
6. <답> 설의법
7. <답> 극락왕생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
8. <답> 무량수불
9. <답> 서방
10. <답> 사뇌가
11. <답> 의지적
12. <답> 달, 무량수불
13. 핵심 정리
 - 성격 : <답> 불교적, 기원적(祈願的)
 - 표현 : <답> 상징법
 - 작가 : <답> 광덕

서술형 문제

1. <답> 화자는 왕생하기를 기원하기 때문에 간절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2. <답> 일차적이고 표면적인 청자는 화자가 말을 직접 하고 있는 대상인 달이다. 그러나 실제로 화자가 말을 전달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대상은 무량수불이기 때문에 본질적인 청자는 무량수불이다.
3. <답> 화자의 소원은 불교적 가치관인 극락왕생이며, 그 소원을 이루어줄 대상 또한 불교의 신적 존재인 무량수불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에는 불교 사상이 반영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4. <답> ‘두 손 곧추 모아’에서 화자의 경건한 자세가 드러난다.
5. <답> 화자의 소원을 서방 정토에 있는 무량수불에게 전하는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6. <답> 내용상으로는 불교적 기원을 담은 노래이며, 형식상으로는 향가의 완성형이라 할 수 있는 10구체 향가의 형식을 따르고 있다.
7. <답> 시적 화자가 위치한 현세와 극락 정토인 서방을 잇는 중개자의 의미를 갖는다.
8. <답> 세 부분으로 나뉘고, 마지막 부분은 감탄사로 시작한다.
9. <답> 아미타불이 살고 계시는 서방정토에서 살고 싶다.
10. <답> 이 작품의 달은 소원을 비는 대상, <보기>의 달은 애상적 정서를 환기시키는 대상이다.
11. <답> 이 작품의 달은 화자의 염원을 대상에게 전달하는 매개체이고, <보기>의 달은 화자가 소원을 이루어 주기를 바라는 존재이다.
12. <답> 향가의 낙구가 변천되어 시조의 종장 첫 3음 절로 쓰였다.

13. <답> 1-4구는 달에게 소원을 전해 주기를 부탁하고, 5-8구는 화자가 부처에게 간절히 왕생을 기원하고 있으며, 9-10구는 화자가 무량수불에게 서원의 실행을 당부하고 있다.

14. <답> 먼저 작가가 불도에 정진하는 과정에서 창작되었기 때문이고, 두 번째로는 죽어서 극락왕생한다는 불교의 내세 사상이 작품의 밑바탕에 깔려 있기 때문이다.

15. <답> 두 작품은 모두 종교적 색채가 강하며, 초월적 존재에게 기도를 하는 형식의 시라는 점, 화자가 경건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비슷하다. 그러나 '원왕생가'의 종교적 기반이 불교인데 반해, '가을의 기도'는 기독교적 사상을 배경으로 한 시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